

자료

이재성 고문 추천 편지글

존경하는 이재성 대표님께

저는 지난 몇 년간 이재성 대표님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을 회상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이어진 당신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저를 비롯한 보육원 친구들의 삶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천진난만하던 중학교 시절, 책 한 권도 친구들과 돌려봐야 했던 우리 집에 공부방이 생겼습니다. 어리둥절한 보육원 아이들을 향해 환하게 웃음 지어 주시던 당신의 첫 인상이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한번 오고 말겠지 생각했지만, 이후 몇 년 동안이나 보육원의 교육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주셨지요. 덕분에 그동안 저와 친구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현실에 포기하지 않고 저마다 용기 내어 꿈을 이야기 합니다.
저도 꿈이 생겼습니다. 의료 취약 계층에게 서비스 가능한 디지털 의료 기업을 만드는 것.

좁은 방에서 꿈을 꾸던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와 더 큰 세상을 마주 볼 수 있도록 많은 기회와 용기를 주신 덕분에 어릴 적 꿈 그대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대표님께서 삶을 통해 제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저도 어려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전하기 위해 멘토로서 활동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비취줄 수 있는 불빛이 되어 사회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 편지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꿈을 잃어버렸던 아이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조건 없는 응원과 도움으로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고, 꿈을 이루기 위한 발을 내디딜 용기를 얻었습니다. 대표님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우리의 작았던 세상의 진정한 히어로입니다.

누구보다 환하게 지어 주셨던 그 웃음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